|  |  |  |
| --- | --- | --- |
| **국무원**  **최근 동북진흥 지원 관련 중대 정책조치 의견**  國發〔2014〕28號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기구:  당중앙, 국무원이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를 결정한 이래 동북지역 경제사회발전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는바 지난해부터 경제성장속도 지속 둔화하여 일부 산업이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일부 심층 체제적, 구조적 모순이 부각되고 있다. 동북지역 진흥 발전성과를 확고히 하기 위해 발전과정의 어려운 과제 해결에 노력하고 내생적 발전에 의존하여 동북경제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하는바 최근 동북진흥 지원 관련 아래 의견을 제시한다.  1. 시장 활성화 유발에 주력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돌파구로 삼아 각종 시장주체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1)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기관 이양을 강화한다. 지방에 이미 이양한 투자 프로젝트 비준 사항은 ‘同級 비준’ 원칙에 따라 법에 의해 토지사용 예비심사 등 관련 사전 비준사항을 지방에 이양하여 책임지게 한다. 석유화학산업 계획방안에 포함된 대련 長興島 석화산업기지 등 관련 프로젝트 비준 및 토지사용 예비심사 등 사전 비준은 省級 정부에 이양하여 책임지게 한다. 요녕성이 투자분야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기관에 이양 개혁시범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省級 비준사항에 해당되는 투자 프로젝트는 준법 전제 하에 사전 비준사항을 최대한 감소한다. 중관촌 국가 자주창신시범구에서 전개한 해외 M&A 외환관리 시범정책을 동북지역 중점 장비제조기업에 확대 적용한다.  (2) 非공유제 경제 발전 촉진한다. 동북지역에서 민영경제 발전 개혁시범을 전개하고 육성방식과 정책을 혁신하여 민영기업집단들을 육성하고 사영기업 현대기업제도 구축 시범 전개하여 노공업기지에서 민영경제 가속화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을 모색한다. 민간자본 진입 산업과 분야 한층 더 개방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국가급 중대 투자 시범프로젝트에 대한 장려 조속 실시한다. 동북지역에서 민간자본이 민영은행 등 금융기구 설립하는 것을 시범 추진한다. 민간자본, 외자 및 각종 신형의 사회자본이 출자 지분참여 등 방식으로 국유기업 개혁과 재편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도시 인프라 건설, 환경관리 등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자본 협력체제(PPP) 등 방식 적극 확대한다.  2. 국유기업 개혁 한층 더 심화한다.  동북지역 국유기업과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동북이 국유기업 개혁 측면에서 선행시범하는 것을 지원하고 혼합소유제 경제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국유경제발전 활성화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3) 지방 국유기업 개혁 심화한다. 지방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분류 추진하고 本級(지방정부 관할권내) 국유기업 일부 지분양도 수익과 국유자본 경영수익을 필요한 개혁 Cost에 전문 지불하는데 사용한다. 각종 자본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유자산 자본화, 증권화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혼합소유제 기업의 관리층, 기술중견, 임직원이 출자하여 소속기업 체제개혁에 참여하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4) 중앙 국유기업 개혁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당중앙, 국무원의 총괄적 계획에 따라 동북지역 국유자본 총량과 분포상황에 맞춰 省間 지역성(또는 省級) 국유자본 투자회사와 운영회사 설립하여 경영부실 국유기업 재편과 퇴출을 가속화한다. 조건 성숙時 지분 다원화 등 방식을 통해 중앙기업이 동북지역에서의 자원을 통합하여 국유자본이 핵심, 전략성, 기초성, 선도형 산업에 집중하도록 추진하고 일부 지분양도 수익을 필요한 개혁 Cost에 전문 지불하도록 허락하고 기업직원 배치 원만하게해결해야 한다. 중앙기업과 지방 협동발전 정책 검토하고 중앙기업과 지방이 공동으로 산업단지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5) 국유기업 개혁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 원만하게 해결한다. 분류 처리 정책조치 조속 출범하여 지원 강화하고場辦大集體(국유기업이 도시로 복귀한 하향 지식청년과 직원의 자녀 취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집체소유제 기업), 기업이 맡은 사회직능 분리, 퇴직인원 사회화 관리 등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2~3년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북지역에서중앙기업의 ‘三供一業(물/전기/난방 공급, 건물 관리)’ 분리 인계작업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지방 국유기업도 적극적으로 관련 작업 추진해야 한다.  3. 혁신 드라이브 발전에 긴밀히 의존한다.  경험을 분석하고 정책을 보강하며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하고 지역 혁신체계 보강하며 경제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한다.  (6) 산학연 협동 혁신 개혁 시범 전개한다. 과학기술과 경제의결합을 제약하는 체제적 장애를 없애 산학연 응용간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각종 자금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배분과 사용효율 실질적으로 제고한다. 중대 기술장비와 하이엔드 스마트 장비, 신재료, 바이오 등 동북지역 장점과 잠재력 있는 산업체인을 중심으로 국가 중점공정에 의존하여 중견기업을 주체로 이익을 연결고리로 삼아 혁신자원 통합하여 몇몇 산업기술 혁신전략 연맹을 조성하고 동북지역 혁신 체인 통합을 유도하는 중앙예산내 전문투자금 설립하여 자금지원 강화하며 중대 혁신공정 집중 실시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북지역에서 첫번째 중대 기술장비 시범 프로젝트들을 조직 실시한다.  (7) 지역 혁신 정책 보강한다. 중관촌 국가 자주창신시범구의 관련 시범정책을 동북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과학기술 성과 처리권, 수익권, 지분장려 등 방면에서의 모색 실험을 장려한다. 동북지역에 국가 자주창신시범구 설립 검토한다. 국가외환보유고를 활용해 기업이 해외 과학기술형 기업 인수하는 구체 방법 검토한다. 동북지역 혁신 드라이브 발전 지원 조치 검토한다.  (8) 혁신 기초조건 건설 강화한다. 길림성에 종합 극단조건 실험장치, 흑룡강성에 공간 환경 지면 모의장치(시뮬레이터) 등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포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동북지역에 국가 공정(기술) 연구센터, 국가 공정(중점)연구실 등 R&D 플랫폼들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대형 기업이 사회와 중소기업에 R&D와 검측 설비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상응한 우대정책 검토한다. 동북지역이 혁신기업 100강 시범작업 솔선하여 가동한다. 중국과학원과 동북지역간 합작 강화를 지원하고 산업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한다.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院士 전문가 과학기술 자문활동을 지속 조직 전개한다. 국가 ‘천인계획’, ‘만인계획’ 등 중대 인재공정은 동북지역을 중점 지지해야 하고 하이엔드 장비제조, 국방 과학기술 등 분야에 치중해서 지원한다.  4. 산업 경쟁력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생산력 구도 한층 더 최적화로 조정하고 전통산업 개조 업그레이드 가속화하며 전략적 신흥산업 적극 발전시키고 현대 서비스업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산업발전 새로운 구도 구축한다.  (9) 전통 우세 산업 강화한다. 중대 기술장비 시장 개척을 적극 지지하고 국가 중점 공정이 국산장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장려하며 핵발전, 화력발전, 철도교통, 석화야금, 고급 공작기계 등 우세 장비 해외진출 육성한다. 산업 관련도 높은 중대 산업 프로젝트들을 과학적으로 포진하고 지방과 기업은 恒力그룹 정유/화학공업 일체화 프로젝트와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長興島 정유/화학공업 일체화 1기 프로젝트 사전준비작업을 잘하고 조속착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遼陽石化 구조조정, 중국兵器공업그룹 遙寧化錦石化 개조 확장 건설 등 프로젝트 사전준비작업 가속화 추진한다. 대형 농산품 가공기업이 동북지역에 생산기지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방에 旣투자해 있는 옥수수 심층 가공기업이 공급수요 상황에 따라 옥수수 가공량을 적당히 증가하도록 허가하며 중앙재정은 길림, 흑룡강, 내몽고 3개 지역에 소재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신용이 양호한 옥수수 심층 가공기업이국가에서 임시 수매 저장한 옥수수를규정기한내경매하여 가공할 경우 일정 수량 초과분에 대해 일회성으로 보조금 지급한다.  (10) 신흥산업 육성 가속화한다. 전략적 신흥산업 가속화 발전을 지원하고 동북지역에 발전조건과 비교우세가 있는 분야에 대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포진한다. 전략적 신흥산업 창업투자기금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 동북지역이 스마트 로봇, 가스터빈, 하이엔드 해양공정장비, 반도체장비, 고성능 섬유 및 복합재료, 흑연 신재료, 광전자, 위성 및 응용, 바이오의약 등 산업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에서 중점 지원하여 특색 있는 신흥산업 클러스터 형성한다. 심양, 하얼빈 항공기업이 국제 대형 항공기업과 완제품 조립, 엔진, 부품 등 중대 합작 프로젝트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심양, 대련, 하얼빈 등 지역에 군수/민용 융합발전 시범단지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군수/민용 겸용 하이테크산업 발전시킨다. 길림이 非식량작물 자원 하이엔드화 이용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급 산업이전 수용 시범구 설립하여 국내외 산업이전을 수용한다.  (11) 공업화와 정보화 융합 발전 추진한다. 정보화와 공업화 심층 융합 가속화하고 스마트화, 대용량 백본 전송 네트워크 적당히 선행 건설하고 심양의 인터넷 백본다이렉트 액세스 포인트 건설 가속화하며 하얼빈의 지역성 국제통신업무 출입구국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간, 중국과 몽고간 정보통로 확장한다. 동북지역이 공업화와 정보화 융합발전 시범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며 정보기술로 제조업 개조 업그레이드한다. 차세대 정보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산업 발전 육성한다.  (12) 현대 서비스업 대대적으로 발전한다.  동북지역의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하고 전력/물/가스 사용 등 면에서 공업기업과 같은 가격 실행하며 토지사용 면에서 중점 지원한다. 관광시설 건설 강화하고 관광업 경쟁력 강화하며 大동북 관광 브랜드 구축한다. 동북지역 문화창의, 영상출판, 연예오락 등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심양 鐵西, 장춘 淨月개발구와 하얼빈 등 국가 서비스 종합개혁 시범지역 혁신서비스업 발전방식 지원한다. 동북지역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와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도시 건설 추진한다. 제품과 기술 거래 플랫폼 건설 적극 지원한다.  5. 농업 지속가능한 발전능력 강화한다.  농업발전 기반 다지고 농업 발전방식 전환하며 현대농업 발전의 길 적극 모색한다.  (13) 상품식량 생산 핵심지역 지위 제고 및 확고히 한다. 고표준 기본 경작지 건설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길림 서부와 흑룡강 삼강평원 동부 등 지역이 토지정비 중대 공정 실시하는 것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 전국 1억무 ‘심송정지(深松整地, 토양구조개선을통해가뭄대처능력을높이는기술)’ 시범은 동북지역에서 중점 추진한다. ‘흑토지보호(黑土地保護, 검은 토지 보호)’ 공정 조직 실시하고 토양 유기물 제고와 양분 평형, 경작지 품질 검측 및 수토유실 관리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한다. 동북 4개 성 절수 및 식량증가 행동 프로젝트 건설 적극 추진하고 2015년까지 3,800만무의 집중 이어전 고효율 절수 관개공정 건설한다. 절수 농업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북지역 절수기술과 설비제조업 발전 견인한다.  (14) 현대 농업 발전체제 혁신한다. 흑룡강 ‘2대 평원’ 현대농업 종합개혁 시범 가속화 추진하고 농업 관련 자금 통합 과정에서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 해결 검토한다. 식량 주요 생산지역 이익보상체제 보완하고 국가 농업 관련 자금이 동북지역에 한층 더 치중하도록 강화하며 식량 상품량 등 요소에 따라 지방에 추가 장려하고 중앙재정 형편에 따라 중앙재정이 식량생산 규모가 큰 縣에 자금 장려 추가한다. 식량 주요 판매지역에 생산/판매 합작기금 설립 추진하고 주요 판매지역이 주요 생산지역에서 생산기지 투자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장려한다. 지방정부가 현지실정에 맞게 재정보조금 등 현대농업 발전 금융지원체제 구축하는 것을 장려하고 농촌 금융기구가 금융혁신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15) 식량 저장창고와 물류시설 건설 강화한다. 올해 중앙예산중 14억위안을 동북지역 32억kg 식량 표준화 저장창고 시설과 산적곡물 물류시설 신규건설에 지원하고5억위안을 100억kg 노후창고 개조에지원한다. 식량 저장창고 시설 건설 투자방식 혁신 개혁하고 지방과 사회 저장창고 건설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농가 특히 대량생산 농가,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 신형의 경영주체가 식량 저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동시에 길림, 흑룡강 등 창고 용량이 부족한 지역은 다른 省의 창고 활용 조속 진행한다. 다음 단계 전국 신규 건설할 500억kg 창고용량을 중점적으로 동북지역에 치중하고 2~3년내 동북지역 식량 저장難 문제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북량남운(北糧南運, 북부의 식량을 남부 운송)’이 원활하게 하고 식량운송 통로와 물류 인프라 건설 강화하며 식량 대형 적재소 건설 지속 추진하고 식량 물류체계와 물류망 포진 보강한다.  6. 도시 전환 발전 추진한다.  도시 기능 개선하고 도심지역 노후 공업구와 독립 광공업구 이전 개조 지원하며 자원형 도시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발전과 거주에 적합한 현대도시로 건설한다.  (16) 도심지역 노후 공업구와 독립 광공업구 이전 개조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2014년부터 중앙예산내 전문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매년 20억위안을 동북지역 도심 노후 공업구와 독립 광공업구 이전 개조에 사용한다. 올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하여 문제점이 많고 사전준비작업 기반이 괜찮은 10개 도심 노후 공업구와 10개 독립 광공업구 이전 개조공정을 지원하고 내후년 2년간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先계획 後개조 견지하고 이전 개조 실시방안을 사전에 제정하여 이전 개조를 적극적으로 안정하게 추진한다. 도시 저효율 사용 토지 재개발 등 토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성 금융을 통해 도심 노후 공업구와 독립 광공업구 이전 개조를 지원하는 조치 제정을 검토하며 도심 노후 공업구와 독립 광공업구 이전 개조 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한다.  (17) 도시 인프라 개조 가속화한다. 중앙예산내 투자 강화하고 동북지역 도시 난방/물 공급 등 배관시설 개조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건축 에너지 절약, 난방 공급 배관 개조 및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결합하여 동북지역 ‘따뜻한 집’ 공정 조직 실시한다. 중앙예산내 투자와 재정 전문자금으로 동북지역 오수/쓰레기 처리시설과 오수 배관 건설 지원한다. 특허경영, 투자 보조금 지원, 정부 서비스 구매 등 방식을 활용하여 도시 인프라 취약한 부분 개선하도록 장려한다.  (18) 자원형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한다. 동북지역에서 자원형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 시범을 가동하고 자원개발 보상체제와 이익배분 공유체제 보완한다. 흑룡강성 鷄西, 雙鴨山, 鶴崗, 七台河 4대 석탄도시를 중점으로 몇몇 현대 석탄화공 및 정밀가공 프로젝트 포진 검토하고 자원형 도시 산업 전환 행동계획 실시한다. 자원고갈 도시 취업확대 산업 중점 육성 공정 조직 실시하고 재취업 프로젝트들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며 阜新 가죽, 遼源 양말, 대소흥안령 블루베리 등 취업규모를 충분히 보장하는 산업 중점 육성한다. 중앙예산내 투자자금 강화하고 동북 자원형 도시에 대체산업단지와 집중지역 건설한다. 흑룡강성 4대 석탄 도시 등 지역은 석탄채굴 침하구역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7. 중대 인프라 건설 가속화 추진한다.  중대 인프라 공정 건설을 계획하고 발전 병목 제약을 없애야 한다.  (19) 종합 교통망 건설 가속화한다. 철로분야에서, 京沈(북경-심양) 고속철도, 哈佳(하얼빈-가목사), 沈丹(심양-단동), 丹大(단동-대련), 吉圖琿(길림-도문-훈춘), 哈齊(하얼빈-치치하얼), 哈牡(하얼빈-목단강) 등 고속철도 건설 가속화하고 赤峰, 通遼와 京沈(북경-심양) 고속철도 연결선 사전준비작업 추진한다. 동북지역 동부 철도 관통하고 흑룡강성 변경지역 철도 건설 검토한다. 濱洲(하얼빈-만주리) 철도, 哈牡(하얼빈-목단강) 철도 등 전기화와 속도 제고 개조 실시한다. 발해 해저터널 공정 사전준비작업 가속화 추진한다. 도로 분야에서, 京哈(북경-하얼빈) 고속도로 확장 개조 가동하고 요녕 鐵嶺에서 本溪까지, 吉黑(길림-黑河) 고속도로의 길림에서 荒崗까지의 구간 등 국가 고속도로 ‘단절도로’ 건설 가속화하고 국도 203선 길림구간, 국도 201선 鶴崗구간 등 일반 국도/성급도로 개조와 확장건설 추진하며 병목 도로구간을 없애고 국방도로와 삼림지역 삼림방화 응급도로 건설 강화한다. 공항 분야에서, 하얼빈 공항 확장 개조 건설 가속화하고 대련 신공항, 심양공항 제2 활주로, 장춘공항 2기 확장, 長海공항 확장 건설, 연길공항 이전 건설 및 松原, 建三江, 五大連池, 綏芬河 등 支線공항 사전준비작업 추진한다. 도시 지하철 분야에서, 대련, 심양, 장춘, 하얼빈 및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에서 지하철 건설 중짐 추진한다. 국제 운송 통로 건설 강화하고 러시아 경유하는 중국-유럽 철도 대통로 관통시키며 중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간 同江철도대교, 중국과 북한간 단동 압록강 도로대교, 集安도로대교 등 중점 프로젝트 건설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 撫遠, 黑河 등 국경을 넘는 철도 건설 사전준비작업 검토 전개하고 중국과 몽고 철도 통로 건설 적극 추진한다.  (20) 다원화한 청결에너지 체계 구축한다.  전력 외부 송전 통로 건설 가속화하고 동북지역 잔여전력을 전력계통에 연계하지 못하는문제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내몽고 錫盟에서 산동까지의 특고압 교류, 錫盟에서 강소까지의 특고압 직류, 요녕 綏中발전소 화북전망에 연계하는 개조 등 송전공정 조속 착공한다. 흑룡강에서 길림, 요녕을 경유하여 화북까지의 송전공정 사전준비작업 가속화 추진한다. 흑룡강, 길림에서 가격경쟁을 통한 전력계통 연계 전력개혁 시범을 검토하고 내몽고 通遼에서 지역 소형 전력망 시범을 추진한다. 동북지역 에너지 구조 최적화하고 요녕 紅沿河 핵발전 2기 프로젝트 건설 착공하며 요녕 徐大堡 핵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적당한 시기 가동한다. 동북지역에서 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들을 건설하도록 비준 가속화한다. 지열 에너지 개발 이용 가속화한다. 공업 석탄 보일러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 감소 개조, 잔여 열량 등 부산물 에너지 시범공정 지원한다. 길림성에서 오일 셰일 종합 개발이용 시범 공정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중국과 러시아 원유 수송관 복선, 중국과 러시아 동선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黑河와 러시아 아무르주 정유화학공업 및 가공유 수송 프로젝트 등 중대 합작 프로젝트들을 가속화 실시한다.  (21) 수리 시설 대대적으로 발전한다. 흑룡강, 송화강, 눈강 등 주요 본류, 지류 종합 정비 관리하고 홍수재해 방지 체계 보강한다. 遼西北供水 2기, 길림 중부 引松供水, 哈達山 수리허브(1기), 눈강에서 길림성 백성시로 인수(引嫩入白), 눈강에서 내몽고 尼爾基로 인수(尼尔基引嫩) 확장건설 1기, 引綽濟遼 및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 ‘3강 연통’ 등 중대 수리공정 건설 가속화 추진한다. 흑룡강 閣山, 奮鬪와 길림 松原 관개지역, 요녕 猴山 저수지 등 중점 공정 조속 착공한다. 수토자원 조건이 구비된 지역은 현대 관개시설 발전시키고 삼강평원 및 尼爾基, 大安, 綽勒 저수지 하유 등 관개지역 건설을 가속화한다.  8. 민생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한다.  민생 공정 건설 중점 추진하고 진흥의 성과가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광범위한 대중들이 수혜받도록 해야 한다.  (22) 판자촌 개조 가속화 추진한다. 판자촌 개조 공방전을 잘해야 한다. 2014년 동북지역 70만가구 개조하고 2~3년내 전국적으로 기존 판자촌 개조 계획을 솔선하여 기본상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앙재정은 동북지역 판자촌 개조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중앙예산내 투자가 동북지역 광공업(석탄광 포함), 국유 삼림지역, 국유 개간지역 판자촌 개조 관련 인프라 건설에 치중하게 한다. 금융수단을 더욱 잘 활용하여 판자촌 개조를 지원하고 개발은행이 동북지역 판자촌 개조에 대한 지원 더욱 강화하는 것을 장려하며 올해 600억위안 수준의 신용대출을 준비하여 개조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 건설자금 수요를 만족시킨다. 개발은행 프로젝트 자본금 단기융자(Bridge Loan) 동북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은 서부지역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동등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판자촌 개조하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융자를 지원한다. 동북지역 판자촌 개조 프로젝트 ‘채권 대출 조합’ 채권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판자촌 개조공정에 필요한 신규 추가된 건설용 토지는 가급적 최대한 보장한다.  (23) 사회보장 체계 보완한다. 중앙재정이 기업 직원 기본양로보험에 대한 투입은 지속 동북지역에 치중하고 기업 퇴직인원 기본양로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한다. 場辦大集體(국유기업이 도시로 복귀한 하향 지식청년과 직원의 자녀 취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집체소유제 기업) 직원의 사회보장 문제 원만하게 해결한다. 폐쇄/파산기업 퇴직인원과 경영난 기업 직원을 기본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 집행한다.  (24) 취업 안정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취업 형세에 대한 분석과 검토, 판단을 강화하고 대응조치 적기에 취해 경제둔화에 따른 대규모 직원 실업을 방지해야 한다. 취업이 힘든 인원을 도와 취업하게 하고 취직자가 없는 가정은 최소 1명 취업을 보장한다. 대학 졸업생이 동북지역에 가서 취업, 창업하는 것을 장려한다.  9. 생태환경 보호 강화한다.  녹색 순환 저탄소 발전 추진에 주력하고 파란 하늘, 청산녹수의 아름다운 고향과 안정된 북방 생태 안전방어벽를구축한다.  (25) 생태 기능구 건설 중점 추진한다.  천연림 보호공정 지속 실시하고 나무 벌목량을 대폭 감소하며 2014년부터 중앙재정은 매년 천연림 자원 보호공정 재정자금 23.5억위안 지급하여 흑룡강 중점 국유 삼림지역이 상업성 벌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시범을 솔선하여 가동한다. 동북 기타 국유 삼림지역을 상업성 벌목 금지범위에 조속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내몽고 대흥안령 삼림지역에서 국유 삼림지역 종합 개혁 시범 전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수토유실 종합관리 강화한다. 삼강평원, 송료평원 등 중점 습지에 대한 보호 추진하고 유역 습지 생태 물공급 공정 실시하며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경작지를 습지로 환원 및 습지 생태이민 시범을 전개한다. 흑룡강 興凱湖, 길림 査幹湖, 요녕 大伙房 수원보호지역 등이 호수 생태환경보호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커얼친(科爾沁) 사막지대 등 전문관리 공정 실시한다. 길림, 흑룡강 서부지역 등 알칼리성 토양 관리 가속화 지원하고 하천과 호수 연계 공정 실시하며 생태경제구 건설한다. 동북지역 생태문명 선행시범구 건설 지원하고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 감소 재정정책 종합 시범 전개한다.  (26) 공업 폐기지와 노후 광산구 환경관리 추진한다. 공업폐기지 환경보호, 리스크 평가와 관리복원 전개한다. 광산구 생태와 지질 환경정비 강화하고 노후 광산구 침하구, 노천 채굴 갱도, 맥석산(석탄에 섞인 잡석), 광산폐석 등 종합관리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중대 지질재해와 환경안전 폐해를 통제 및 제거한다. 광공업 폐기지 재개발 이용 추진한다. ‘정부 지원, 시장화 운영’ 방식에 따라 공업폐기지와 광산구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에 대해 전문 관리 공정 실시한다. 공업폐기지와 광산구 환경관리 국제합작 전개한다.  10. 전방위적으로 개방 합작 확대한다.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하고 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며 발전 분야와 공간을 지속 확대한다.  (27) 동북아지역 및 선진국과의 개방합작 확대한다. 동북진흥과 러시아 원동 개발 연결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원동개발 합작체제 가동하며 에너지, 광산자원, 제조업 등 분야에서 중대 합작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국무원 비준방안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지역 합작발전(투자)기금 조성 가속화하며 하얼빈을 러시아와의 합작 중심도시로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연과 인문 우세를 발휘하여 한국, 몽고, 일본, 북한과의 합작 실속있게 추진하고 대련에 중국/일본/한국 순환경제시범기지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선진국과의 합작 확대하고 중국과 독일 정부간 노공업기지 진흥 교류합작체제 구축하며 중국과 독일 양국이 심양에 하이엔드 장비제조단지 공동 설립하는 것을 추진한다. 중국과 싱가폴 길림식품구 합작 차원을 제고한다.  (28) 중대 개방합작 플랫폼들을 구축한다.  대련 金普新區를 중국이 동북아지역向 개방합작의 전략적 고지로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省, 市 경제관리권한을 新區에 이양한다. 綏芬河(東寧), 연길(장백), 단동 중점 개발개방실험구 설립 검토하고 만주리, 二連浩特 중점 개발개방실험구와 중국 도문강지역(훈춘) 국제합작시범구 건설과 조건이 구비된 지역이 종합보세구와 국경을 넘는 경제합작구 건설을 지원한다. 중점 변경도시 건설 강화하고 주변지역 영향력과 흡인력을 강화한다. 鐵嶺 등 지역에 보세물류센터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동북 중심지와 연해산업간 우세 상호보완, 양성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29) 대외개방 정책 개선한다. 동북지역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게 원유 수입 및 사용 자격을 부여하고 흑룡강 농지개간 식량 자기경영 수출입권을 부여한다. 주변국으로부터의 석유 수입, 식량 등 제품 쿼터를 늘리고 변경지역에서 수입자원 심층가공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변경 소액 무역 전문 이전지출 자금정책 보강한다. 동북지역 프로젝트가 국제금융조직과 외국정부 우대대출 신청 사용하는 것을 우선 지원한다. 하얼빈, 장춘공항 등이 일부 국가와 지역에 대해 72시간 무비자 경유정책을 추진한다. 대련 동북아 국제 수상운수센터 건설 가속화한다.  (30) 지역경제 합작 강화한다. 동북지역과 환발해, 京津冀(북경/천진/하북지역) 통합계획과 융합 발전 추진한다. 동북 4개 성 지역합작과 협동발전체제 보강하고 부처와 지방 합작 협동추진하는 효과적인 채널 모색하며 조치를 실시 및 다양한 분야 실속 있는 합작 심화를 추진한다. 동북지역 내부 지역합작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발전계획을 제정하며 동북지역 동부경제벨트 및 동북 3성 서부와 내몽고 동부 일체화 발전 추진한다.  11. 정책보장과 조직실시 강화한다.  새로운 형세, 새로운 요구에 맞춰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양호한 정책환경을 창조하며 업무강도를 높이고 각종 정책조치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31) 재정정책. 중앙재정은 동북지역 일반성과 전문 이전지출을 한층 더 강화한다. 자원고갈 도시에 대한 이전지출 강화를 검토한다. 동북지역 조건이 구비된 省市를 지방채권 자체발행/상환 시범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다.  (32) 금융정책. 동북지역 농업지원용 농촌금융기관에 대한 재대출, 중소기업지원용 재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성 금융, 상업성 금융이 동북진흥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모델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동북지역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기업채권 발행하는 것을 우선 지원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금융기구와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하는 것을 허가한다. 동북진흥 산업투자기금 설립을 통합적으로 계획 검토한다. 중소기업 신용담보체계와 서비스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동북지역 담보와 재담보기구 발전을 지속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중점 장비기업이 금융리스회사를 설립하여 금융리스업무 전개하는 것을 허가한다.  (33) 투자정책. 인프라, 생태건설, 환경보호, 빈곤지역 개발과 사회사업 등 분야에 중앙예산내 투자를 배치할 때 서부지역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중앙은 동북 고냉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의 간선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과 자본금 지원 강화한다. 중앙이 배치한 동북지역 공익성 건설 프로젝트는 변경지역과 빈곤지역 縣 및 縣 이하 관련자금을 취소한다. 중앙예산내 투자는 동북지역 중대 프로젝트와 省間 합작프로젝트 사전준비작업 전문자금을 지원하고 동북 각지도 전문자금을 배치하여 중대 프로젝트 사전준비작업을 잘해야 한다.  (34) 조직실시 강화한다. 발전개혁위는 국무원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 영도소조 포진전략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동북진흥 각종 업무 지원을 통합적으로 잘 추진하며 모니터링 검토 판단을 강화하고 중점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국무원 각 관련 부처는 지도를 강화하고 밀접히 협조하여 실시세칙 조속히 제정하고 정책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발전개혁, 국토, 환경보호, 재정, 금융 등 관련 부처는 중점 지원해야 한다. 동북 4개 성은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책임지고 유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부방안을 제정하고 업무책임을 이행하고 각종 정책조치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35) 감독 점검 강화한다. 각 관련 부처는 직책에 따라 R&R 정립하고 다이나믹한 피드백체제를 구축하며 심층 현지 감독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반기 1회 동북진흥 업무진행상황을 발전개혁위에 보고하여 발견한 문제점은 제때에 개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발전개혁위는 적기에 중대 사항 조율해결하고 각 관련 부처와 지역이 각종 중대 정책조치를 집행하도록 독촉하고 반기 1회 집행 진행현황 및 관련 업무사항을 취합하여 국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 문제는 적기에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동북지역 전면적 개혁 심화, 체제 혁신, 경제사회 지속발전 실현을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 새로운 단계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실시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안정 성장, 개혁 촉진, 구조조정, 민생에 큰 의미가 있다. 각 유관 측은 책임의식과 우환의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신심을 굳건히 하고 어려움에 맞서 도전하며 분발하여 성과를 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동북지역 전면적 진흥 촉진과 중국에 새로운 경제버팀목 육성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국무원  2014년 8월 8일 |  | **国务院**  **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若干重大政策举措的意见**  国发〔2014〕28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党中央、国务院决定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以来，东北地区经济社会发展取得巨大成就。但目前也面临新的挑战，去年以来经济增速持续回落，部分行业生产经营困难，一些深层次体制机制和结构性矛盾凸显。为巩固扩大东北地区振兴发展成果、努力破解发展难题、依靠内生发展推动东北经济提质增效升级，现就近期支持东北振兴提出以下意见。  一、着力激发市场活力  以简政放权为突破口，促进各类市场主体竞相迸发发展活力。  （一）进一步简政放权。对已下放地方的投资项目审批事项，按照“同级审批”原则，依法将用地预审等相关前置审批事项下放地方负责。将列入石化产业规划布局方案的大连长兴岛石化产业基地等相关项目核准及用地预审等前置审批委托省级政府负责。鼓励辽宁省开展投资领域简政放权改革试点，对属于省级审批的投资项目，在依法合规的前提下，尽量减少前置审批事项。将在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开展的境外并购外汇管理试点政策拓展至东北地区重点装备制造企业。  （二）促进非公有制经济大发展。在东北地区开展民营经济发展改革试点，创新扶持模式与政策，壮大一批民营企业集团，开展私营企业建立现代企业制度示范，探索老工业基地加快发展民营经济的有效途径。进一步放宽民间资本进入的行业和领域，抓紧实施鼓励社会资本参与的国家级重大投资示范项目，同时，要在基础设施、基础产业等领域推出一批鼓励社会资本参与的地方重大项目。在东北地区试点民间资本发起设立民营银行等金融机构。鼓励民间资本、外资以及各类新型社会资本，以出资入股等方式参与国有企业改制重组。在城市基础设施建设、环境治理等领域，积极推广政府与社会资本合作机制（PPP）等模式。  二、进一步深化国有企业改革  进一步深化东北地区国有企业和国有资产管理体制改革，支持东北在国有企业改革方面先行先试，大力发展混合所有制经济，切实增强国有经济发展活力。  （三）深化地方国有企业改革。地方政府要分类推进国有企业改革，拿出本级国有企业部分股权转让收益和国有资本经营收益，专项用于支付必需的改革成本。充分利用各类资本市场，大力推进国有资产资本化、证券化。有序推进混合所有制企业管理层、技术骨干、员工出资参与本企业改制。  （四）大力推进中央国有企业改革。根据党中央、国务院的统一部署，结合东北地区国有资本总量和分布情况，组建跨省的区域性（或省级）国有资本投资公司和运营公司，加快经营不善国有企业重组和退出。条件成熟时，通过股权多元化等方式整合中央企业在东北地区的资源，推动国有资本向关键性、战略性、基础性和先导性行业领域集中，允许拿出部分股权转让收益用于支付必需的改革成本，妥善安置企业职工。研究中央企业和地方协同发展政策，支持中央企业与地方共建产业园区。  （五）妥善解决国有企业改革历史遗留问题。尽快出台分类处理的政策措施，加大支持力度，力争用2—3年时间，妥善解决厂办大集体、分离企业办社会职能、离退休人员社会化管理等历史遗留问题。在东北地区全面推进中央企业分离移交“三供一业”（供水、供电、供热、物业管理）工作，地方国有企业也要积极开展相关工作。  三、紧紧依靠创新驱动发展  要总结经验、完善政策，深化科技体制改革，健全区域创新体系，推动经济转型升级。  （六）开展产学研用协同创新改革试验。打破制约科技与经济结合的体制机制障碍，打通产学研用之间的有效通道，统筹各方面资金并切实提高分配和使用效率。围绕重大技术装备和高端智能装备、新材料、生物等东北地区具有优势和潜力的产业链，以国家重点工程为依托，以骨干企业为主体，以利益为纽带，整合创新资源组建若干产业技术创新战略联盟，设立引导东北地区创新链整合的中央预算内投资专项，加大资金支持力度，集中实施一批重大创新工程，力争在关键核心技术方面取得突破。在东北地区组织实施一批重大技术装备首台（套）示范项目。  （七）完善区域创新政策。研究将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试点政策向东北地区推广，鼓励在科技成果处置权、收益权、股权激励等方面探索试验。研究在东北地区设立国家自主创新示范区。研究利用国家外汇储备资金支持企业并购国外科技型企业的具体办法。研究支持东北地区创新驱动发展的措施。  （八）加强创新基础条件建设。研究在吉林省布局综合极端条件试验装置、在黑龙江省布局空间环境地面模拟装置重大科技基础设施，支持东北地区建设一批国家工程（技术）研究中心、国家工程（重点）实验室等研发平台。推动大型企业向社会和中小企业开放研发和检验检测设备，研究给予相应优惠政策。在东北地区率先启动创新企业百强试点工作。支持中科院与东北地区加强“院地合作”，建设产业技术创新平台。继续组织开展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院士专家科技咨询活动。国家“千人计划”、“万人计划”等重大人才工程要对东北地区给予重点支持，对高端装备制造、国防科技等领域予以倾斜。  四、全面提升产业竞争力  进一步调整优化生产力布局，加快改造提升传统产业，积极发展战略性新兴产业，大力发展现代服务业，构建产业发展新格局。  （九）做强传统优势产业。积极支持重大技术装备拓展市场，鼓励引导国家重点工程优先采用国产装备，扶持核电、火电、轨道交通、石化冶金、高档机床等优势装备走出去。科学布局一批产业关联度高的重大产业项目，地方和企业要做好恒力炼化一体化、中石油长兴岛炼化一期项目前期工作并力争尽早开工。加快推进中石油辽阳石化结构调整、中国兵器辽宁华锦石化改扩建等项目前期工作。鼓励大型农产品加工企业在东北地区布局生产基地，允许地方现有玉米深加工企业根据供需状况适度增加玉米加工量，中央财政对吉林、黑龙江、内蒙古3省区规模较大、信誉较好的玉米深加工企业，在规定期限内竞购加工国家临时收储玉米，超过一定数量部分给予一次性补贴。  （十）加快培育新兴产业。支持战略性新兴产业加快发展，对东北地区具有发展条件和比较优势的领域，国家优先布局安排。积极推动设立战略性新兴产业创业投资基金。国家集中力量扶持东北地区做大做强智能机器人、燃气轮机、高端海洋工程装备、集成电路装备、高性能纤维及复合材料、石墨新材料、光电子、卫星及应用、生物医药等产业，形成特色新兴产业集群。支持沈阳、哈尔滨航空企业与国际大型航空企业开展总装、发动机、零部件等重大合作项目。推动在沈阳、大连、哈尔滨等地设立军民融合发展示范园区，发展军民两用高技术产业。鼓励吉林开展非粮生物质资源高端化利用。设立国家级承接产业转移示范区，承接国内外产业转移。  （十一）推进工业化与信息化融合发展。加快信息化与工业化深度融合，适度超前建设智能化、大容量骨干传输网络，加快沈阳互联网骨干直联点建设，依托哈尔滨区域性国际通信业务出入口局，扩容中俄、中蒙跨境信息通道。支持东北地区开展工业化与信息化融合发展试点，用信息技术改造提升制造业。培育发展新一代信息技术、云计算、物联网等产业。  （十二）大力发展现代服务业。加快东北地区生产性服务业发展，在用电、用水、用气等方面与工业企业实行相同价格，在用地方面给予重点支持。加强旅游设施建设，提升旅游业竞争力，打造大东北旅游品牌。扶持东北地区文化创意、影视出版、演艺娱乐等文化产业发展。支持沈阳铁西、长春净月开发区和哈尔滨等国家服务业综合改革试点区域创新服务业发展模式。推进东北地区电子商务试点城市和服务外包示范城市建设。积极支持产品和技术交易平台建设。  五、增强农业可持续发展能力  要夯实农业发展基础，转变农业发展方式，积极探索现代农业发展之路。  （十三）巩固提升商品粮生产核心区地位。大力开展高标准基本农田建设，继续支持吉林西部和黑龙江三江平原东部等地实施土地整治重大工程。今年全国1亿亩深松整地试点重点安排在东北地区。组织实施黑土地保护工程，加大对土壤有机质提升、养分平衡、耕地质量检测以及水土流失治理等的资金支持力度。积极推进东北四省区节水增粮行动项目建设，到2015年建成3800万亩集中连片高效节水灌溉工程。通过大力发展节水农业，带动东北地区节水技术和设备制造业发展。  （十四）创新现代农业发展体制。加快推进黑龙江“两大平原”现代农业综合配套改革试验，研究解决涉农资金整合中遇到的新情况新问题。完善粮食主产区利益补偿机制，国家涉农资金进一步加大对东北地区倾斜力度，按粮食商品量等因素对地方给予新增奖励，视中央财力状况，增加中央财政对产粮大县奖励资金。推动粮食主销区建立产销合作基金，鼓励引导主销区到主产区投资建设生产基地。鼓励地方政府结合实际，建立财政贴息等现代农业发展金融扶持机制，引导农村金融机构开展金融创新。  （十五）加强粮食仓储和物流设施建设。今年中央预算内投资安排14亿元，支持东北地区新建64亿斤粮食标准化仓储设施和一批散粮物流设施；中央财政安排5亿元，维修改造200亿斤仓容危仓老库。改革创新粮食仓储设施建设投资方式，充分发挥地方和社会建仓积极性，鼓励支持农户特别是种粮大户、家庭农场、农民合作社等新型经营主体储粮。同时，对吉林、黑龙江等仓容紧张地区，抓紧进行跨省移库腾仓。下一步全国新建1000亿斤仓容重点向东北地区倾斜，争取用2—3年基本解决东北地区粮食仓储难问题。畅通“北粮南运”，加强运粮通道及物流基础设施建设，继续推进粮食大型装车点建设，完善粮食物流体系和节点布局。  六、推动城市转型发展  要完善城市功能，支持城区老工业区和独立工矿区搬迁改造，促进资源型城市转型，建设宜产宜居的现代城市。  （十六）全面推进城区老工业区和独立工矿区搬迁改造。从2014年起扩大中央预算内投资相关专项规模，每年安排20亿元专门用于东北地区城区老工业区和独立工矿区搬迁改造。今年年内集中力量支持问题突出、前期工作基础较好的10个城区老工业区和10个独立工矿区实施搬迁改造工程，明后两年力争全面展开。坚持先规划后改造，提前制定搬迁改造实施方案，积极稳妥推进搬迁改造。加大城镇低效用地再开发等土地政策支持力度，研究制定通过开发性金融支持城区老工业区和独立工矿区搬迁改造的措施，支持发行城区老工业区和独立工矿区搬迁改造企业债券。  （十七）加快城市基础设施改造。加大中央预算内投资支持力度，大力推进东北地区城市供热、供水等管网设施改造。结合既有建筑节能、供热管网改造以及热电联产机组建设，组织实施东北地区“暖房子”工程。中央预算内投资和财政专项资金支持东北地区污水垃圾处理设施和配套污水管网建设。鼓励利用特许经营、投资补助、政府购买服务等方式，改善城市基础设施的薄弱环节。  （十八）促进资源型城市可持续发展。在东北地区启动资源型城市可持续发展试点，健全资源开发补偿机制和利益分配共享机制。以黑龙江省鸡西、双鸭山、鹤岗、七台河四大煤城为重点，研究布局若干现代煤化工及精深加工项目，实施资源型城市产业转型攻坚行动计划。组织实施资源枯竭城市吸纳就业产业重点培育工程，支持建设一批再就业项目，重点培育阜新皮革、辽源袜业、大小兴安岭蓝莓等能充分吸纳就业的产业。加大中央预算内投资资金支持力度，在东北资源型城市建设一批接续替代产业园区和集聚区。对黑龙江省四大煤城等地区原中央下放煤矿继续实施采煤沉陷区治理。  七、加快推进重大基础设施建设  要规划建设一批重大基础设施工程，破解发展瓶颈制约。  （十九）加快综合交通网络建设。铁路方面，加快京沈高铁、哈佳、沈丹、丹大、吉图珲、哈齐、哈牡等快速铁路建设，推进赤峰、通辽与京沈高铁连接线前期工作；贯通东北东部铁路，研究建设黑龙江省沿边铁路；实施滨洲铁路、哈牡铁路等电化扩能提速改造；加快推进渤海跨海通道工程前期工作。公路方面，启动京哈高速公路扩容改造，加快辽宁铁岭至本溪、吉黑高速吉林至荒岗段等国家高速公路“断头路”建设，推进国道203线吉林段、国道201线鹤岗段等普通国省干线公路改扩建，消除瓶颈路段，加大国边防公路和林区森林防火应急道路建设。机场方面，加快哈尔滨机场改扩建工程建设，推进大连新机场、沈阳机场二跑道、长春机场二期扩建、长海机场扩建、延吉机场迁建，以及松原、建三江、五大连池、绥芬河等支线机场前期工作。城市轨道交通方面，重点推进大连、沈阳、长春、哈尔滨及其他符合条件城市轨道交通建设。加大国际运输通道建设力度，打通经俄罗斯的中欧铁路大通道，重点推进中俄同江铁路大桥、中朝丹东鸭绿江界河公路大桥、集安公路大桥等重点项目建设，开展中俄抚远、黑河等跨境铁路项目前期研究，积极推进中蒙铁路通道建设。  （二十）构建多元清洁能源体系。加快电力外送通道建设，切实解决东北地区“窝电”问题。尽快开工内蒙古锡盟至山东交流特高压、锡盟至江苏直流特高压、辽宁绥中电厂改接华北电网等输电工程，加快推进黑龙江经吉林、辽宁至华北输电工程前期工作。研究在黑龙江、吉林开展竞价上网电力改革试点，推动在内蒙古通辽开展区域微型电网试点。优化东北地区能源结构，开工建设辽宁红沿河核电二期项目，适时启动辽宁徐大堡核电项目建设。在东北地区加快审批建设一批热电联产集中供热项目。加快地热能开发利用。支持工业燃煤锅炉节能减排改造、余热余压利用示范工程。支持吉林省开展油页岩综合开发利用示范工程。加快实施中俄原油管道复线、中俄东线天然气管道、黑河与俄阿穆尔州炼化及成品油储输项目等一批重大合作项目。  （二十一）大力发展水利设施。重点推进黑龙江、松花江、嫩江等主要干流、支流综合整治，完善防洪减灾体系。加快推进辽西北供水二期、吉林中部引松供水、哈达山水利枢纽（一期）、引嫩入白、尼尔基引嫩扩建一期、引绰济辽以及黑龙江、松花江、乌苏里江“三江连通”等重大水利工程建设。尽快开工黑龙江阁山、奋斗和吉林松原灌区、辽宁猴山水库等重点工程。在水土资源条件具备的地区发展现代灌溉设施，加快三江平原及尼尔基、大安、绰勒水库下游等灌区建设。  八、切实保障和改善民生  要推进重点民生工程建设，使振兴成果更多更公平地惠及广大群众。  （二十二）加快推进棚户区改造。打好棚户区改造攻坚战，2014年东北地区开工改造70万套，力争再用2—3年，在全国率先基本完成现有棚户区改造计划。中央财政继续加大对东北地区棚户区改造支持力度，中央预算内投资进一步向东北地区工矿（含煤矿）、国有林区、国有垦区棚户区改造配套基础设施建设倾斜。更好运用金融手段支持棚户区改造，鼓励开发银行进一步加大对东北地区棚户区改造支持力度，今年安排信贷规模600亿元左右，确保列入改造计划项目建设资金需求。开发银行项目资本金过桥贷款（软贷款回收再贷）对东北地区支持标准按西部地区执行。同等条件下优先支持棚户区改造的企业发行债券融资。扩大东北地区棚户区改造项目“债贷组合”债券发行规模。对棚户区改造工程所需新增建设用地实行应保尽保。  （二十三）完善社会保障体系。中央财政对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的投入继续向东北地区倾斜，进一步提高企业退休人员基本养老金水平。妥善解决厂办大集体职工的社会保障问题。落实将关闭破产企业退休人员和困难企业职工纳入基本医疗保险的政策。  （二十四）努力促进就业稳定。加强对就业形势分析研判，及时采取有针对性举措，防止经济下滑造成大规模职工失业。帮助就业困难人员实现就业，确保零就业家庭实现至少一人就业。鼓励高校毕业生到东北地区就业和创业。  九、加强生态环境保护  要着力推进绿色循环低碳发展，建设天蓝水绿山青的美丽家园和稳固的北方生态安全屏障。  （二十五）推进重点生态功能区建设。继续实施天然林保护工程，进一步大幅调减林木采伐量，2014年起中央财政每年安排天然林资源保护工程财政资金23.5亿元，支持在黑龙江重点国有林区率先启动全面停止商业性采伐试点。争取尽快将东北其他国有林区纳入停止商业性采伐范围。研究在内蒙古大兴安岭林区开展国有林区综合配套改革试验。加大水土流失综合治理力度。推进三江平原、松辽平原等重点湿地保护，实施流域湿地生态补水工程，在有条件的区域开展退耕还湿和湿地生态移民试点。支持黑龙江兴凯湖、吉林查干湖、辽宁大伙房水源保护区等开展湖泊生态环境保护。实施科尔沁沙地等专项治理工程。支持吉林、黑龙江西部地区等加快盐碱地治理，实施河湖连通工程，建设生态经济区。支持东北地区生态文明先行示范区建设，开展节能减排财政政策综合示范。  （二十六）推进工业废弃地和老矿区环境治理。开展工业废弃地环境调查、风险评估和治理修复。加强矿区生态和地质环境整治，全面开展老矿区沉陷区、露天矿坑、矸石山、尾矿库等综合治理，控制和消除重大地质灾害和环境安全隐患。推进工矿废弃地复垦利用。按照“政府支持、市场化运作”方式，对工业废弃地和矿区历史遗留问题实施专项治理工程。开展工业废弃地和矿区环境治理国际合作。  十、全方位扩大开放合作  要实施更加积极主动的开放战略，全面提升开放层次和水平，不断拓展发展领域和空间。  （二十七）扩大向东北亚区域及发达国家开放合作。加强东北振兴与俄远东开发的衔接，启动中俄远东开发合作机制，推动在能源、矿产资源、制造业等领域实施一批重大合作项目，按照国务院批复方案加快筹备中俄地区合作发展（投资）基金，支持哈尔滨打造对俄合作中心城市。发挥地缘和人文优势，务实推进对韩、蒙、日、朝合作，支持大连设立中日韩循环经济示范基地。扩大面向发达国家合作，建立中德政府间老工业基地振兴交流合作机制，推动中德两国在沈阳共建高端装备制造业园区。提升中新吉林食品区合作层次。  （二十八）打造一批重大开放合作平台。支持大连金普新区建设成为我国面向东北亚区域开放合作的战略高地，根据需要将省、市经济管理权限下放至新区。研究设立绥芬河（东宁）、延吉（长白）、丹东重点开发开放试验区，支持满洲里、二连浩特重点开发开放试验区和中国图们江区域（珲春）国际合作示范区建设，在具备条件的地区建设综合保税区和跨境经济合作区。加强重点边境城市建设，增强对周边地区的辐射力和吸引力。支持铁岭等地建设保税物流中心，促进东北腹地与沿海产业优势互补、良性互动。  （二十九）完善对外开放政策。给予东北地区符合条件的企业原油进口及使用资质，赋予黑龙江农垦粮食自营进出口权。增加从周边国家进口石油、粮食等权益产品配额，鼓励在边境地区开展进口资源深加工。完善边境小额贸易专项转移支付资金政策。优先支持东北地区项目申请使用国际金融组织和外国政府优惠贷款。推动哈尔滨、长春机场等对部分国家和地区实行72小时过境免办签证政策。加快建设大连东北亚国际航运中心。  （三十）加强区域经济合作。推动东北地区与环渤海、京津冀地区统筹规划，融合发展。完善东北四省区区域合作与协同发展机制，探索部门与地方协同推进合作的有效渠道，健全推进落实措施，深化多领域务实合作。大力推进东北地区内部次区域合作，编制相关发展规划，推动东北地区东部经济带，以及东北三省西部与内蒙古东部一体化发展。  十一、强化政策保障和组织实施  要结合新形势、新要求，强化政策支持，创造良好政策环境，加大工作力度，确保各项政策措施落实到位。  （三十一）财政政策。中央财政进一步加大对东北地区一般性和专项转移支付力度。研究加大对资源枯竭城市转移支付力度。研究将东北地区具备条件的省市纳入地方政府债券自发自还试点范围。  （三十二）金融政策。加大对东北地区支农再贷款和支小再贷款支持力度。鼓励政策性金融、商业性金融探索支持东北振兴的有效模式。优先支持东北地区符合条件企业发行企业债券，允许符合条件的金融机构和企业到境外市场发行人民币债券。统筹研究设立东北振兴产业投资基金。加快中小企业信用担保体系和服务体系建设，继续扶持东北地区担保和再担保机构发展。允许符合条件的重点装备制造企业设立金融租赁公司开展金融租赁业务。  （三十三）投资政策。在基础设施、生态建设、环境保护、扶贫开发和社会事业等方面安排中央预算内投资时，比照西部地区补助标准执行。中央加大对东北高寒地区和交通末端干线公路建设的项目补助和资本金倾斜。中央安排的东北地区公益性建设项目，取消边境地区和贫困地区县及县以下配套资金。中央预算内投资专门安排资金支持东北地区重大项目和跨省区合作项目前期工作，东北各地也要安排专门资金支持做好重大项目前期工作。  （三十四）抓好组织实施。发展改革委要认真落实国务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领导小组部署，统筹做好支持东北振兴各项工作，加强跟踪研判，推进重点工作。国务院各有关部门要加强指导、密切配合，抓紧研究出台实施细则，形成政策合力。对于重点建设项目，发展改革、国土、环保、财政、金融等各有关部门要给予重点支持。东北四省区要充分发挥主体作用，守土有责、守土尽责，采取有力举措，制定具体方案，落实工作责任，确保各项政策措施落到实处。  （三十五）加强督促检查。各有关部门要按照职责分工，建立动态反馈机制，深入实地开展督查调研，每半年将支持东北振兴工作进展情况送发展改革委，对发现的问题要及时研究提出整改建议。发展改革委要及时协调解决重大事项，督促各有关部门和地区落实各项重大政策举措，每半年要将落实进展情况及相关工作考虑汇总上报国务院，重大问题及时向国务院报告。  支持东北地区全面深化改革、创新体制机制、实现经济社会持续健康发展，是新时期新阶段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必然要求，对于稳增长、促改革、调结构、惠民生具有重大意义。各有关方面要切实增强责任意识和忧患意识，坚定信心，迎难而上，奋发有为，真抓实干，为促进东北地区全面振兴、培育中国新的经济支撑带作出更大贡献。  国务院  2014年8月8日 |